



잘 자란 야자는 줄기에 가리질의 저장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이용할 수 있다. 토양의 가리질 상태를 잘 살핍으로서 짧은 기간에 야자의 성장과 수확량에 역효과를 미치지 없이 가리질 시비량을 줄일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 가장 흔히 쓰이는 마그네슘비료는 Kieserite와 마그네슘석회석이다. 이 두 물질은 그 용해성과 산 중화능력에 있어서 서로 다르며 Kieserite는 물에 더 잘 용해된다. 어린 야자에게나 마그네슘 흡입이 급히 필요할때는 Kieserite를 쓰는 것이 좋다. 선택된 비료는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확한 시기에 밭에 시비되어야 한다.

시비의 타이밍과 방법이 아주 중요

대부분의 야자농장에서 시비 빈도는 작물의 요구, 야자의 연령, 지상조건, 강수량 및 사용되는 비료의 형태에 좌우된다. 어린 야자나무에 있어서는 높은 빈도의 시비가 필요한데 이곳에서는 야자의 성장이 빠르고 뿌리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료는 좋은 자양분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배면적에 널리 고르게 주어져야 하는데 이는 야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한다.

대부분의 용해되는 비료는 그 적당한 시비 타이밍이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다 자란 야자에 있어서 질소질과 가리질의 유실로 인한 손실량은 비가 조금 내린 후 건조한 시기에 시비하면 상당히 줄어든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광석 시비는 그 낮은 용해성 때문에 그 타이밍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시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o 극도로 많은 비가 내리는 기간에는(+250mm/월) 시비를 피하라.
- o 월 15일이상 비가 내리는 달을 피하라.
- o 1일 25mm를 초과해서 비가오는 날을 피하라.
- o 비가 계속내려서 토양이 흠뻑 젖었을 때를 피하라.

명확하고 정확한 지도는 기름용 야자단지에서 주요 도구가 되며 지속적인 최대의 수확과 이익을 내기 위하여 현장에 알맞는 경종방식과 경영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비료성분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뿌리에서 자양분을 최대한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야자를 위한 좋은 생육 조건을 구성해 주는 것이다.